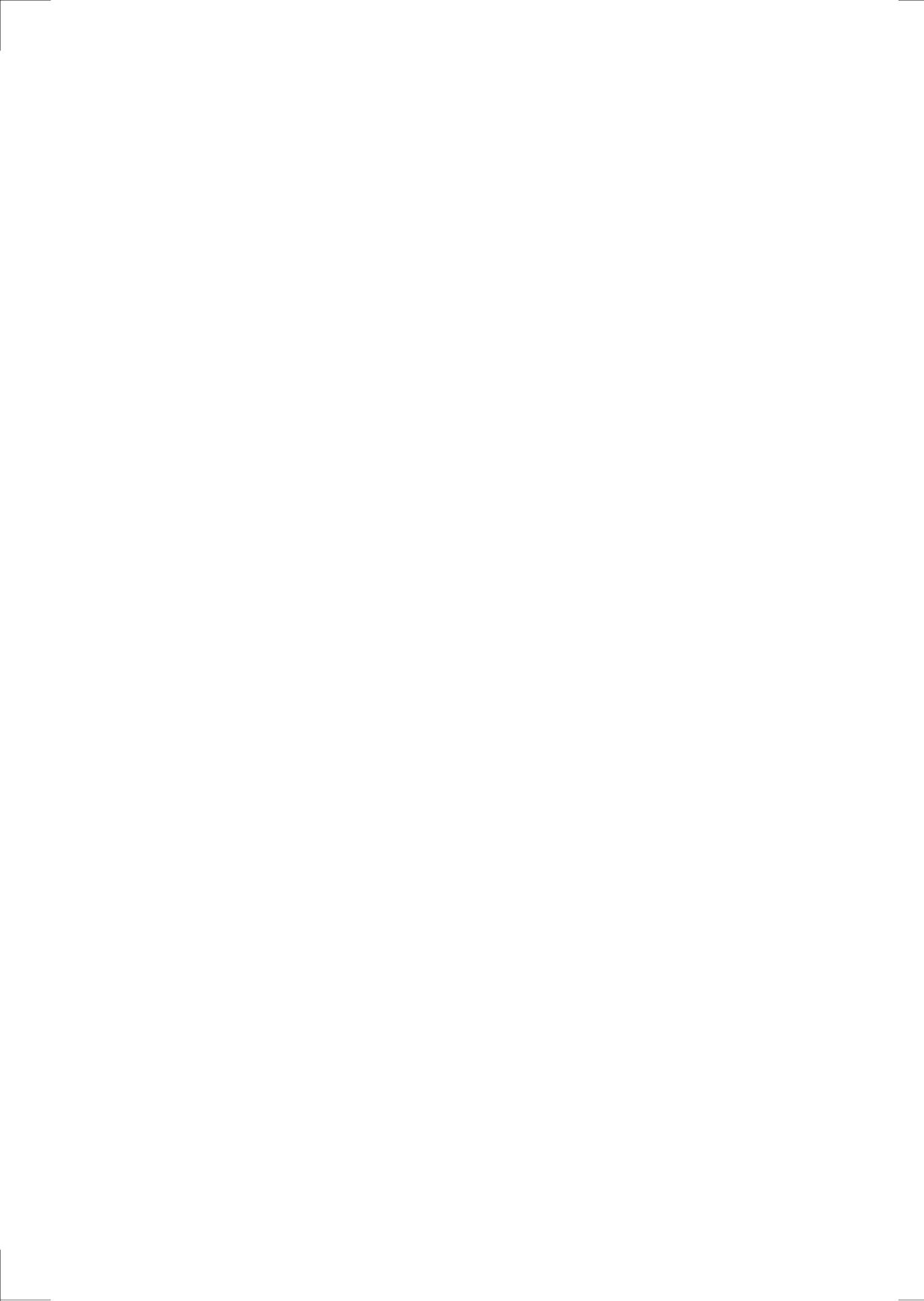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 '09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흥개도국들의 경제도 위축될 전망
 - (미국) 민간소비 위축, 기업투자 감소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나,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는 지속될 전망
 - 민간소비는 실업률 증가, 자산가치 하락, 신용경색으로 당분간 위축될 전망이며 기업투자 역시 유동성 부족으로 부진할 전망
 - 수출의 성장기여는 지속될 전망이나, 최근 국제경제 상황과 달러화의 평가절상으로 수출여건은 악화될 가능성 존재
 - 경기침체와 원유 및 식품·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물가는 하락할 전망
 - (유로지역) 신용경색, 소득증가율 둔화, 자산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및 경제전망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소비 및 기업투자 위축, 수출둔화 등으로 경기침체 심화
 - (일본) 엔화 절상과 해외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둔화, 기업투자 감소 등 경제부진 전망
 - (신흥개도국) 수출감소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경기 둔화
 - (중국) 주택시장의 초과공급,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투자 및 수출부진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전망
 - (인도) 내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질 이자율 상승으로 경제성장 둔화 전망
 -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 및 금속 가격의 급락, 신용경색으로 인한 투자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둔화

- (브라질)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겠으나, 수출부진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

※ 브라질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낮아 이번 경제위기의 영향은 여타국에 비해 크지 않을 전망

<표 1-1> 세계경제 전망

(단위: %)

	'09.1월				'08.11월	'08.10월
	2007	2008	전망		2009	2009
			2009	2010		
세계경제	5.2	3.4	0.5	3.0	2.2	3.0
미국	2.0	1.1	-1.6	1.6	-0.7	0.1
유로지역	2.6	1.0	-2.0	0.2	-0.5	0.2
일본	2.4	-0.3	-2.6	0.6	-0.2	0.5
중국	13.0	9.0	6.7	8.0	8.5	9.3
인도	9.3	7.3	5.1	6.5	6.3	6.9
러시아	8.1	6.2	-0.7	1.3	3.5	5.5
브라질	5.7	5.8	1.8	3.5	3.0	3.5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08.1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s('08.11, '09.1),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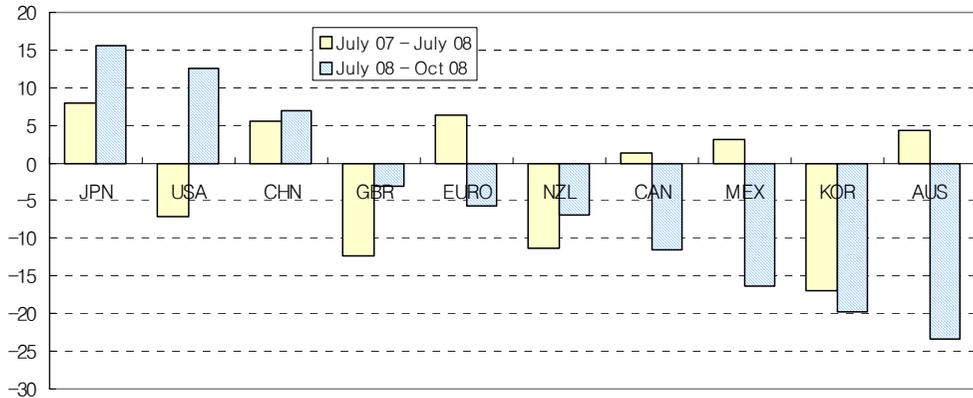
□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국제무역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 존재

○ 선진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 세계 교역량은 감소할 전망이며, 최근의 환율 불안은 국제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

- 세계 교역량 전망*(%): ('07) 7.2 → ('08) 4.1 → ('09) -2.8 → ('10) 3.2

*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MF, '09.1월

[그림 1-1] 최근 환율변화



주: 명목실효환율의 누적 변화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08.12월

-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는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대만) '09.2월 대만 정부는 올 한해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 둔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2.97%로 전망
 - (싱가포르) '08년 4/4분기 해외수요가 급감(-9.6%)하는 가운데, 동 기간 실질 GDP는 16.4%(연간환산치·annualized rate)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 '08년 GDP 대비 수출비중(%): 대만 74.4(잠정치), 싱가포르 185.2
- 보호무역주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필요
 -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정치적 압력 등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우려 증가
 - WTO의 감시·감독을 통한 보호무역 방지 및 제2차 G-20 정상회의('09.4월)에서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Standstill)의 재확인 등 각국의 국제적 공조 필요
 - '10년 G-20 의장국이 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조정 역할 및 보호

주의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다자무역과 FTA를 통한 무역증진을 도모할 필요

- 국제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은 하향세로 전환
 - 원유가격은 생산량 감축 및 지정학적 긴장 요인에도 불구하고 '08.7월 고점 이래 하락 추세
 - 건설(알루미늄, 구리, 아연) 및 제조업 부문의 침체로 금속수요 둔화, 금속가격은 현재 하향된 수준에서 안정화 전망

- 실물경기 부진과 낮은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전망
 - 석유 및 곡물가격 등의 하락은 소비자 물가를 하락시키고, 운송비 등의 비용을 하락시켜 여타 상품가격의 상승을 완화시키는 부차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
 -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는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

2. 주요국 재정정책 동향

- 각국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행
 - IMF('09.2월)에 따르면 올해 G-20 국가의 경기부양책 평균 규모는 GDP의 1.4%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 G-20 국가간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내용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조세지출 1/3, 재정지출 2/3로 구성
 - (조세지출 수단) 개인소득세 및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인하 등에 초점
 - (재정지출 수단) 인프라 투자 증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 주택 시장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

<표 1-2> G-20 국가의 경기부양책

재정정책 수단		해당 국가	
조세지출	개인소득세 인하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간접세 인하	중국	
	법인세 인하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러시아, 스페인, 미국, 인도네시아 등	
재정지출	인프라 투자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	
	취약계층 지원	실업급여	캐나다, 러시아, 영국, 미국
		현금보조	(취약계층) 캐나다, 한국, 일본; (아동지원) 호주, 독일; (연금수급자 지원) 호주, 캐나다
	중소기업 지원	한국	
	전략산업/취약산업 지원	(건설) 캐나다, 독일; (국방) 러시아; (농업) 러시아	
	장기 정책 과제	(의료·교육) 호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캐나다, 중국, 독일, 영국	

자료: IMF

- IMF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경제성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G-20 정부는 현재의 경기부양책으로 '09년 0.4~1.3%p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선진국의 경우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신흥국의 경우 중국, 러시아, 남아공에서 경제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표 1-3> G-20 국가의 경기부양책 규모 및 성장효과 추정

국가	규모 (GDP 대비 %)			성장효과 (%)	
	2008	2009	2010	2009	2010
아르헨티나	0.0	1.3	n.a.	0.3~1.1	-0.1~-0.2
호주	0.7	0.8	0.3	0.2~0.7	-0.1~-0.4
브라질	0.0	0.3	0.2	0.1~0.2	0.0~0.0
캐나다	0.0	1.5	1.3	0.4~1.3	0.1~0.4
중국	0.4	2.0	2.0	0.6~2.1	0.5~1.4
프랑스	0.0	0.7	0.0	0.2~0.6	0.0~-0.1
독일	0.0	1.5	2.0	0.4~1.2	0.3~0.9
인도	0.0	0.5	n.a.	0.2~0.5	-0.1~-0.3
인도네시아	0.0	1.3	1.1	0.4~0.8	0.0~0.0
이탈리아	0.0	0.2	0.1	0.1~0.2	0.0~-0.1
일본	0.4	1.4	0.4	0.4~1.3	-0.3~-0.7
한국	1.0	1.5	0.3	0.5~1.3	-0.3~-0.8
멕시코	0.0	1.0	n.a.	0.3~1.0	-0.2~-0.6
러시아	0.0	1.7	n.a.	0.6~1.7	-0.6~-1.7
사우디아라비아	2.4	3.3	3.5	1.3~4.2	0.2~0.6
남아공	1.3	1.3	n.a.	0.4~1.3	-0.4~-1.3
스페인	3.1	1.1	0.3	0.3~0.9	0.0~0.1
터키	0.0	0.0	n.a.	0.0~0.0	0.0~0.0
영국	0.2	1.4	-0.1	0.4~1.0	-0.4~-1.0
미국	1.1	1.9	2.9	0.6~1.4	0.4~1.2
평균 (PPP 가중 평균)	0.5	1.4	1.3	0.4~1.3	0.1~0.3

자료: IMF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불균형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국은 중기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할 필요

- 자동안정화 장치의 영향, 세수감소, 금융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의 요인으로 재정적자는 확대될 전망
- 정부부채도 이례적인 금융시장 지원 및 부실금융기관 구제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증가할 전망

<표 1-4>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명목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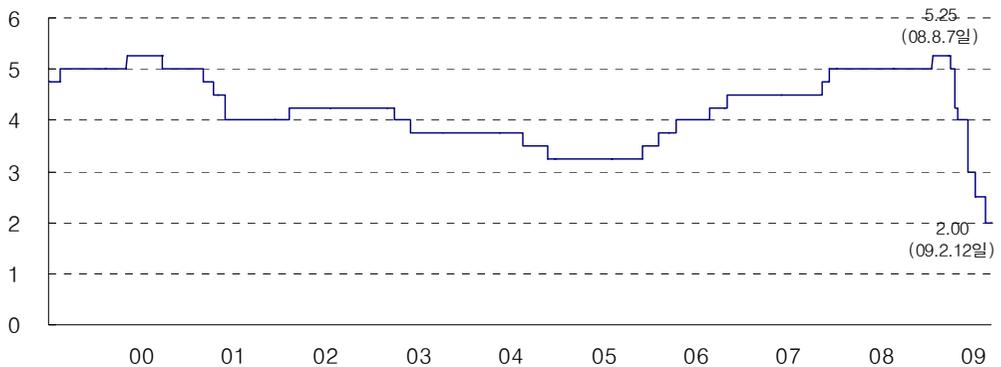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재정수지	-0.1	1.3	1.8	1.1	1.5	1.5	1.6	1.8	0.6	0.3
	국가채무	22.2	20.1	18.8	17.0	16.7	16.1	15.4	14.2	13.4	13.3
캐나다	재정수지	0.7	-0.1	-0.1	0.9	1.5	1.3	1.4	0.3	-1.3	-1.7
	국가채무	82.7	80.6	76.6	72.6	71.1	68.0	64.1	63.0	65.6	66.9
프랑스	재정수지	-1.6	-3.2	-4.1	-3.6	-3.0	-2.4	-2.7	-2.9	-3.7	-3.9
	국가채무	64.4	67.4	71.5	74.1	76.0	71.5	70.1	72.5	75.9	79.0
독일	재정수지	-2.8	-3.6	-4.0	-3.8	-3.3	-1.5	0.1	0.0	-0.9	-1.0
	국가채무	59.7	62.1	65.3	68.7	71.1	69.4	65.5	64.8	66.3	66.3
일본	재정수지	-6.3	-8.0	-7.9	-6.2	-6.7	-1.4	-2.4	-1.4	-3.3	-3.8
	국가채무	143.7	152.3	158.0	165.5	175.3	171.9	170.6	173.0	174.1	177.0
한국	재정수지	4.6	5.4	0.4	2.5	3.0	3.6	4.5	4.8	3.8	3.6
	국가채무	17.4	16.6	18.4	22.6	24.7	27.6	28.9	32.6	31.5	33.3
영국	재정수지	0.6	-2.0	-3.7	-3.7	-3.3	-2.7	-2.8	-3.6	-5.3	-6.5
	국가채무	40.4	40.8	41.2	43.5	46.1	46.0	46.9	58.7	63.6	69.4
미국	재정수지	-0.4	-3.8	-4.8	-4.4	-3.3	-2.2	-2.9	-5.3	-6.7	-6.8
	국가채무	55.2	57.6	60.9	61.9	62.3	61.7	62.9	73.2	78.1	82.5
Euro area	재정수지	-1.8	-2.6	-3.1	-3.0	-2.5	-1.3	-0.6	-1.4	-2.2	-2.5
	국가채무	73.9	74.2	75.1	75.9	77.0	74.7	71.4	70.7	73.2	74.7
Total OECD	재정수지	-1.3	-3.3	-4.0	-3.4	-2.8	-1.3	-1.4	-2.5	-3.8	-4.1
	국가채무	69.8	71.7	74.0	75.6	77.4	76.0	75.0	79.7	82.8	85.8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08.12월

3. 시사점

- 통화정책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경기부양책은 수요진작을 주안점으로 삼되 세계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얻지 못할 경우 2010년에도 추가적인 수단 적용
 -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수단은 경기침체기 동안 경제활동을 부양할 수 있는 초기 투입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 현재의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프라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그림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주: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목표,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 경기부양책은 중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함을 유념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정책은 일시적인 수단과 정책이어야 하며 경기 호전 시 점진적인 조정을 수행할 필요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여 연금부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명확

한 계획을 엄두에 두고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

- 재정부출의 효율성 증진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행

□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 어려움에 처한 산업에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부개입은 무역 상대국에게 불공정한 산업 정책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 세계 각국이 비관세 무역 장벽, 수출보조금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국제적 공조 강화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1. 미국 (FY2010: 2009.10~2010. 9)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경기부양법(ARRA)’ 제정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 조치 시행

①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09년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위축, 기업투자 감소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경기부양책 시행 등 재정지출 확대로 FY 2010 재정적자는 GDP의 8%에 이를 전망

<표 II-1> 미국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경제전망	2008	2009	2010	2011
실질 GDP 성장률	1.3	-1.2	3.2	4.0
CPI	3.8	-0.6	1.6	1.8
실업률	5.8	8.1	7.9	7.1
재정전망(GDP 대비)	2008	2009	2010	2011
재정수입	17.7	15.4	16.2	17.5
재정지출	21.0	27.7	24.1	23.4
재정수지	-3.2	-12.3	-8.0	-5.9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0, OMB, '09.2월

②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ARRA)을 반영한 FY 2010 예산안은 다음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

- ① 경제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500억 달러 잠정 배정

② 의료·교육·에너지 분야 등 미래를 위한 전략투자: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의료보험 준비기금’ 도입

③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FY 2013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로 축소

③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 2010의 재정수입은 FY 2009 대비 8.9% 늘어난 2조 3,810억 달러 전망
 - FY 2009 큰 폭으로 하락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FY 2010에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각각 10.8%, 34.5% 증가
- FY 2010 재정지출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9.8% 감소한 3조 5,520억 달러
 - 에너지 및 과학기술, 교육, 인프라투자 등에 중점지원

④ 조세정책

-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FY 2010 예산안에서는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조세정책 제안

⑤ 경제위기 대응정책

- '08.10월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긴급경제안정화법(EESA)으로 시행된 TARP는 재무부에 부실자산 구매와 보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총 7,000억 달러 규모의 권한을 부여
 - TARP는 크게 우선주나 워런트 등을 매입하는 자본매입, 대부, 보증활동으로 구성
- '09.2월 금융시장 안정 대책(Financial Stability Plan)
 - 금융시장 안정 신탁기구 설치, 민관투자펀드 조성, 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출 촉진 계획,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주택지원 및 담보주택 차압 방지 대책, 중소기업 및 지역대출 확대 대책 제시
- '09.2월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총 7,872억 달러 규모의 동 법안은 근로연계 세액공제(Making Work Pay), 인프라투자, 취약계층 보호(푸드 스탬프, 실업급여 확대 등) 등에 지원

2. 캐나다 (FY2009: 2009.4~2010.3)

캐나다의 경기부양정책(Economic Action Plan)을 담은 이번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력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09년 캐나다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08.11월 0.3%에서 '09.1월 Δ 0.8%로 하향 전망
- (재정전망) 지난 10년간 흑자를 유지해 오던 캐나다 정부는 '08년 말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2009~10년에는 GDP 대비 2.2%의 재정수지 적자 전망

<표 11-2> 캐나다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경제전망	2008	2009	2010	'11~'14 평균
실질 GDP 성장률	0.7	-0.8	2.4	3.0
CPI	2.4	0.7	1.9	2.0
실업률	6.1	7.5	7.7	6.4
재정전망(GDP 대비)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총세입	14.7	14.4	14.7	15.0
총지출	14.8	16.6	16.6	15.7
재정수지	-0.1	-2.2	-1.8	-0.8

자료: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09, 09.1월

② 예산기조 및 주요내용: 캐나다의 경기부양정책(Economic Action Plan)을 담은 이번 예산안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기조로 하여 작성됨

- ① 캐나다 금융시스템 강화 및 개선
- ② 캐나다인들에게 혜택 및 지출 부양
- ③ 주택시장 부양정책
- ④ 기반시설 구축
- ⑤ 기업 및 커뮤니티 지원

③ 세입 및 지출 전망

- 2009~10년 총세입은 전년 대비 4.8% 감소하여 2,249억CAD로 GDP 대비 14.4% 전망
 - 총세입 하락은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소득세, 법인세, GST 등의 감소 전망에 기인
- 2009~10년 총프로그램지출은 경기부양정책 영향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하여 2,291억CAD 전망
 - 2009~10년 프로그램 지출의 주요항목은 노후혜택(352억CAD), 고용보험(189억CAD), 아동보조금(123억CAD), 의료보건(351억CAD) 등임

④ 경제위기 대응정책

- '09.1월 발표된 FY2009 연방정부 예산안은 400억CAD(GDP대비 2.5%)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2년간 총 516억CAD(GDP대비 3.2%) 규모의 경기부양효과를 기대
 - 캐나다인들에게 혜택 및 지출 부양정책 128억CAD 지원
 - 주택시장 활성화 78억CAD 투자 → 기대효과 약 15억CAD
 - 기반시설구축 118억CAD 투자 → 기대효과 약 89억CAD
 - 기업 및 커뮤니티 75억CAD 지원 → 기대효과 13억CAD
- 경기부양정책을 위해 2013년 회계연도까지 모두 850억CAD 적자재정 운영

3. 일본 (FY2009: 2009. 4~2010. 3)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중 3단계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1~2차 추경예산 및 FY2009년도 예산안 편성, 세제개정 등을 실시

①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둔화로 경기 하강국면 진입
 - 2009년 실질 성장률은 전년대비 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2009년 재정수지는 경기악화로 인한 세입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로 GDP 대비 △4.0%를 기록할 전망

<표 II-3> 일본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경제전망 ¹⁾	2007(실적)	2008(추정)	2009(전망)
GDP 성장률	1.9	-0.8	0.0
CPI	0.4	1.3	-0.4
실업률	3.8	4.2	4.7
재정전망(GDP 대비)	2007(실적)	2008(추정)	2009(전망)
재정수지 ²⁾	-2.9	-2.8	-3.8
기초재정수지 ³⁾	-2.4	-1.9	-2.1
국채잔고 ³⁾	170.6	173.0	174.1

자료: 1)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2009. 1.

2) 재무성, 「平成21年度予算政府案」, 2008.12

3) OECD Economic Outlook, 2008.12.

② 예산기조 및 주요내용: 경제 불황에 따른 「국민생활과 일본경제 수호」라는 관점에서 「단기적 경기대책」, 「중기적 재정재건」, 「중장기적 개혁에 의한 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7가지 정책기조를 제시

- | | |
|-------------------|----------------|
| ① 지속적인 경기대책 추진 | ② 국민생활 보호 |
| ③ 경제수호 및 미래성장력 강화 | ④ 예산배분의 중점화 |
| ⑤ 「중기 프로그램」의 책정 | ⑥ 세출개혁의 지속적 추진 |
| ⑦ 철저한 예산 효율화 | |

③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2009년도 조세수입 및 인지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7조 6,660억엔(14.3%) 감소한 4조 58,880억엔 규모
 - 조세수입 감소 전망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감소에 기인
- FY2009년 일반세출은 51조 7,310억엔으로 전년대비 9.4% 증가
 - 사회보장관계비는 전년대비 14%로 급증하여 24.8조엔 규모이며 신축적 경기대응을 위해 1조엔 규모의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운영

④ 경제위기 대응정책: '08.12월 경기대책 위주의 2009년도 예산정부안 결정

<표 II-4> FY2009 예산안의 경기대응 정책 주요 내용

구 분	항 목	예산액 및 증감
고용대책	고용보험료 0.2% 인하	6,400억엔
	실업급여 적용범위 확대	1,700억엔
	이직자를 위한 주택 및 생활지원	252억엔(신규)
	중소기업 등 고용유지지원	581억엔(+570억엔)
	비정규노동자 등 지원	94억엔(+121%)
지방 활성화	지방 자립을 위한 교부금 창설	9,400억엔(신규)
	식료품 자급력 향상	634억엔(신규)
	지방경제 활성화 사업 후원	37.5억엔(+50%)
	개발낙후지역 통신망 정비	78.7억엔(+27%)
성장력 강화	기초 및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	2,187억엔(+2%)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	705억엔(+4%)
	퇴직 인재활용 지원	58억엔(+100%)
	혁신창조기구 창설	400억엔(신규)
	GIS 크레디트의 구입 촉진	433억엔(+40%)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지원	789억엔(+25%)
	농·상·공업간 협력 지원	242억엔(+88%)
안전망 구축	경제긴급 대응 예비비	1조엔(신규)
	중소기업 자금지원	674억엔(+34%)
	중견 및 대기업 자금지원	103억엔(+100억엔)
	금융기능강화법에 의한 정부자본 참여 확대	10조엔
	은행 등 보유 주식취득의 활용 강화	20조엔

4. 프랑스 (FY2009: 2009. 1~2009. 12)

악화되는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지난 12월 이후 2차에 걸친 경제위기 대응정책 발표

①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09년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
- (재정전망) 경기부양책 및 자동안정화장치의 작동으로 200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6% 전망

<표 II-5> 프랑스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경제전망	2008	2009	2010
GDP 성장률 ²⁾	0.7	-1.8 (-1.5) ³⁾	0.4 (1.0) ³⁾
CPI ^{1) 2)}	3.2	0.8	1.5
실업률 ²⁾	7.8	9.8	10.6
재정전망³⁾			
재정수지(GDP 대비)	-3.4	-5.6	-5.2
재정지출 증가율	1.2	3.2	0.5
부채(GDP 대비)	67.3	73.9	77.5

주: 1)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

2) EU 집행위원회, Interim Forecast, '09.1월

3) <http://www.budget.gouv.fr/> (2009-10 거시경제 전망 및 2009-12 중기재정계획, '09.3)

② 예산기조 및 주요내용

① 재정지출통제로 재정건전성 추구

- 프랑스는 중장기적으로 노령화 인구증가로 인한 비용지출을 감안하여 관련제도 개혁을 통한 균형재정수지 유지

- 특히 의료보험(ONDAM: Objectif national de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관련 지출의 엄격한 관리 추진
- 이러한 재정지출통제는 '09~'12년 다년도 예산안에서도 통제되어 정부지출 전 부문에서 물가상승률+1.1% 범위 안에서 조정
- ②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추구
 - 고등교육과 R&D 분야에 20억 유로 이상 투자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 동안 연간원천과세(Imposition Forfaitaire Annuelle, IFA)을 점진적으로 폐지
- ③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순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7.7% 감소한 2,450억 유로 전망
 -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감소에 기인
 - 재정지출통제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출내역이 '08년과 유사
 - 국방예산을 예외적으로 증액('09~'13년까지 연간 약 6억 유로 증액)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09~'11년의 국방비지출을 동결
- ④ 경제위기 대응정책: 프랑스 정부는 악화되는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지난 12월 이후 2차에 걸친 경제위기 대응정책 발표
 - '08.12월 1차 경기부양책(Plan de Relance): 232억 유로(GDP의 1.1%, 국회통과 기준)
 - 기업자금 지원, SOC 투자, 교육 및 연구개발 활성화, 자동차산업 및 건설산업 자금 지원, 환경 및 에너지 사업 투자, 감세정책 등이 주요내용
 - '09.3월 2차 경기부양책
 - 자동차산업 지원(69억 유로)
 - 사회투자기금 조성(26억 유로)

5. 독일 (FY2009: 2009. 1~2009. 12)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08년 금융시장 안정 대책 및 '09.1월까지 2차에 걸친 경기부양책 마련

①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09년 독일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재정전망) 경기부양책의 발표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2009년 재정적자는 368억 유로 전망

<표 II-6>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10억유로)

경제전망	2007	2008	2009
GDP 성장률 ²⁾	2.5	1.3	-2.3
CPI ^{1) 2)}	2.3	2.8	0.8
실업률 ²⁾	8.4	7.1	7.7

재정전망	2007	2008	2009
재정수입	256.1 ³⁾	271.3 ³⁾	260.7 ⁴⁾
재정지출	270.4 ³⁾	283.2 ³⁾	297.5 ⁴⁾
재정수지	-14.3 ³⁾	-11.9 ³⁾	-36.8 ⁴⁾
*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²⁾	-0.2	-0.1	-2.9

주: 1)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

2) EU 집행위원회, Interim Forecast, '09.1월

3)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8 bis 2012, '08.8월

4) 독일 재무부, '09.1월, 2009년 예산총액(예산+추경)

② 예산기조 및 주요내용

- ① 개발원조(ODA) 및 연구개발 분야 강화
 - 개발원조에 8억 유로, 연구개발에 4억 5천만 유로 배정
- ②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 '08.10월 5,000억 유로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 발표

- '08.11월 31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및 '09.1월 500억 유로 등 2차에 걸친 경기부양책 마련

③ 재정수입 및 주요 지출내역

- 2009년도 재정수입은 법인세 인하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 세금 완화 조치로 인해 전년대비 3.9% 감소한 2,608억 유로 전망
-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등으로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975억 유로
 - (교육 및 연구개발 부문) 교육연구부에 연간 3억 유로씩 배정하여 노령화 인구 및 건강 증진에 대한 연구,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연구 등 지원
 - (ODA) 2009년도에 8억 유로 배정
 - (사회보장) 연방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2009년도 약 1,410억 유로 지원(총 지출의 48.9%)

④ 경제위기 대응정책

- '08.11월 1차 경기 부양책(310억 유로, 2009~2010년도 적용) 주요 내용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간 자산 취득 후 취득가액의 25% 가량 감가상각 허용
 - '09년 말까지 기업의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 소유 은행인 KfW는 추가 지원금 150억 유로 대출 예정
 - 1년간 신차 구매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
 - 실업급여 수혜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1년간 시행) 등
- '09.1월 2차 경기 부양책(500억 유로, 2009~2010년도 적용) 주요 내용
 -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인하(15% → 14%), 누진세 범위 변경
 - '09.7.1일부터 건강보험료 14.9%로 인하
 - 고속도로: 40억 유로 투자
 - 지역 개발 프로그램: 100억 유로
 - 친환경 차량의 개발: 5억 유로 투자 등

6. 영국 (FY2009-10: 2009. 4~2010. 3)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08.10월~'09.1월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의
금융구제 계획 및 경기부양 대책 마련

①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09년 경제 불황이 본격화되어 '91년($\Delta 1.4\%$) 이후 처음으로 $\Delta 1.25 \sim \Delta 0.75\%$ 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2009~10년 경상 재정수지 악화와 순자본투자의 확대로 재정적자는 GDP대비 8.0%(1,180억 파운드) 전망

<표 II-7> 영국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경제전망	2008	2009	2010	2011
실질 GDP 성장률 ¹⁾	0.75	-1.25~-0.75	1.50~2.00	2.75~3.25
CPI ¹⁾	3.75	0.50	2.25	2.00
실업률 ²⁾	5.7	8.2	8.1	-
재정전망 ¹⁾ (GDP 대비)	2008-09	2009-10	2010-11	2011-12
경상 재정수지	-2.8	-5.3	-4.7	-3.3
순자본투자	2.5	2.7	2.1	2.0
재정수지	-5.3	-8.0	-6.8	-5.3

자료: 1) 영국 재무부, Pre-Budget Report, '08.11월

2) EU 집행위원회, Interim Forecast, '09.1월

② 예산기조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이라는 큰 기조 아래 6가지 세부적인 목표 제시

- | | |
|--------------|-------------------|
| ① 거시안정성 유지 | ② 금융시장안정 |
| ③ 기업지원 | ④ 저소득층지원 |
| ⑤ 공공서비스 질 제고 | ⑥ 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③ 재정수입 및 지출 전망

-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는 2009~10년 경상세입 추정치는 5,355억 파운드로 2008~09년 예산 전망치보다 대폭 감소(-12%)
 - 2009~10년 경상세입의 비율은 GDP 대비 36.2%로 경제가 침체되기 전인 2007~08년과 비교하여 2.3%p 감소
- 총관리지출(TME) = 연간관리지출(AME) + 부처별 지출한도(DEL)
 - 2009~10년 총관리지출은 6,538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4.9% 증가
 - 연간관리지출은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서 2009~10년 2,608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4.8% 증가
 - 부처별 지출상한액은 재량적 성격의 지출로서 2009~10년 3,930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5.1% 증가

④ 경제위기 대응정책

- '08.10월~'09.1월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의 금융구제 계획 및 경기부양 대책 마련

구분	경제위기 대응정책	주요 내용
구제금융	1차 금융구제안 발표('0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3대 은행(HBOS, Lloyds TSB, RBS)에 대해 370억 파운드(GDP대비 2.5%) 규모 공적자금 투입
	2차 금융구제안('09.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란은행의 민간자산 매입제도 신설 및 장기 유동성 지원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은행 손실 보상제도 ▪ ABS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신설
경기부양책	1차 경기부양책('0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40억 파운드(GDP대비 0.3%) 지원
	2차 경기부양책('0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인하 및 법인세율 인상 연기, 인프라 투자의 조기 실시 등 200억 파운드 규모(영국 경상GDP의 1.4%) 지원

7. 호주 (FY2008-09: 2008. 7~2009. 6)

가계 및 기업 보호를 위해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수행

①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2008~09년 경제성장률 1% 전망
- (재정전망)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 감소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01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수지 적자 전망

<표 11-8> 호주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10억 AUD)

경제전망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실질 GDP 성장률	1.00	0.75	3.00	3.00
CPI	2.00	2.00	2.50	2.50
고용증가율	1.00	-0.75	1.25	1.25
재정전망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재정수입	304.0	304.0	319.0	336.6
재정지출	326.3	337.3	350.5	360.6
재정수지	-22.4	-33.3	-31.5	-23.9
재정수지(GDP 대비)	-1.9	-2.8	-2.5	-1.8

자료: Updated Economic and Fiscal Outlook, '09. 2

② 예산기조 및 주요내용: 가계에 대한 지원과 호주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중점

- ① 정부의 “근로가구지원정책”을 통해 생계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대한 지원 확대
- ② 교육, 기간시설 확충, 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③ 새로운 국가건설자금(교육투자펀드, 호주건설펀드, 보건 및 의료펀드)에 예산 후

자본 투자

- ④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예산 흑자와 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수행하여 경제적 책임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

③ 재정수입 및 지출 전망

- 2008~09년도 재정수입은 세계 경제상황 악화 및 호주 국내경제의 급격한 둔화, 상품가격 급락 등으로 수입 전망이 악화되어 3,308억 AUD 전망
 - 총 재정수입 중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는 2008~09년도에 84억 AUD 전망
- 2008~09년도 재정지출은 경기둔화 및 경기부양책 수행으로 증가하여 3,263억 AUD 전망
 -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예상보다 구직보조금(Newstart) 신청이 증가하여 2008~09년도에 2억 8,800만 AUD 증가

④ 경제위기 대응정책

- 가계 및 기업 보호를 위해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수행

(단위: 억 AUD)

발표시기	정책 내용	규모
2008.10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104
2008.11	녹색미래를 위한 신차정책	62
2008.11	지역사회의 기간시설확충 프로그램	3
2008.11	국가개혁정책 - 학교·병원 개선에 집중 투자	151
2008.12	국가건설정책 -주요한 철도,도로,교육인프라시설에 투자	47
2009.2	국가건설 및 일자리창출계획 -학교,주택,에너지 효율,기반시설 지원 -취업과 경제성장에 긴급 지원	420 -288 -127